

순천시, AI기술로 쓰레기 배출 줄이고 재활용 높이고

자원순환 시범사업...자동수거기 49대로 확대·학교에 음식 감지기 도입 카페거리 다화용컵 보증금 반환 시스템·주민센터에 재활용 체험 공간도

순천시가 오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벌이며 쓰레기 감량에 나선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민이 1인당 하루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0.31kg이다.

순천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순천지역에 설치된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는 이달 현재 모두 32대로, 올해는 17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안에는 '제로 웨이스트 플레이스' 2곳을 시범 운영한다.

이곳은 인공지능 무인회수기와 세계 소분 공간 등을 갖췄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문화를 체험하는 '재활용 문화 확산 거점 공간'으로 운영된다.

음식물쓰레기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순천시는 인공지능 음식 감지기를 지역 학교 1~2곳에 시범 도입한다. 이른바 'AI 푸드 스캐너'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음식 찌꺼기 발생량을 기록한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데 쓰인다. 청소년들은 남은 밥을 줄이며 탄소를 절감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순천시는 'AI 푸드 스캐너'를 도입하면 음식물쓰레기를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카페거리도 만들어진다.

순천시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다화용컵 사용 카페거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카페 손님은 보증금을 낸 뒤 다화용컵을 이용하고 수거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받아갈 수 있다. 다화용컵 수거와 세척은 지역 재활용센터가 맡아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지속가

능발전협의회, 순천YMCA 등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감량 시책 개발을 위한 정책 모임을 운영했다. 이 정책 모임은 협업 시책을 발굴해 올해부터 맞춤형 친환경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4개 읍·면·동은 쓰레기 감량·자원순환 특화시책을 주민참여예산·주민세 환원사업과 연계해 발굴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계획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사업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천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왕지동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후 달라지는 쓰레기 배출·수거·처리 과정에 대응한 2030년 자원순환도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가 끝난 '쓰레기 문제해결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오는 3월께 공개 모집해 쓰레기 배출 감량과 자원순환 가치 달성을 위한 정책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쓰레기 인식전환 시민홍보단(가칭 에코스포터즈)을 육성한다.



순천시가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2030년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시민 주도로 열린 쓰레기 배출 감축 운동.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은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문화 정착 없이는 원활한 공공자원화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로컬리움(지역주의)과 AI에 기반을 둔 자원순환 정책 추진을 통해 3대가 편안한 정주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여수산단 고농도 미세먼지 첨단장비로 배출 감시

여수시·4개 기관 드론 등 활용 프로판·아크릴로니트릴 등 측정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활용



여수시 등 5개 기관이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맞아 여수국가산단에서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점검했다.

여수시는 최근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18일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합동 점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점검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광주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점검은 여수산단 LG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200m 구간에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동측정 차량 4대, 드론 7대 등 첨단감시 장비를 활용했다.

대기오염 물질인 프로판, 프로펜, 아크릴로니트릴 등을 측정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주간 시행한 4차례 합동 점검 이후 5번째로 치렀다.

여수시와 관계 기관은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처럼 여수시 산단환경과 주무관은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만큼 이번 점검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욱 쾌적한 환경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오는 3월에는 더 정밀한 대기오염물질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농수산물 '11번가'서 온라인 판매 군-쇼핑몰 협약

고흥군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흥물'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흥물' 농수산물 온라인판매 활성화 업무협약은 지난 19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조대정 고흥군 부군수와 고품일 영업기획사무 등이 참석했다.

'고흥물'은 중소농가의 온라인 판촉과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11번가와 손잡고 온라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11번가와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기업과 6차산업 인증 상품이 판로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품일 11번가 영업기획사무는 "전국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유자를 비롯한 김, 양파 등 우수한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고흥은 온라인 시장에서



고흥군과 11번가 관계자들이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며 "고흥물과 다양한 판촉을 통해 반드시 서로서로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지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 방치된 빈집 철거하면 300만원

1억2000만원 투입 40동 철거 목표...다음달 26일까지 신청

여수시는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도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 사업은 도심지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

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빈집 40동을 철거하기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빈집 소유자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빈집 53동에 대해 철거비를 지원했다.

여수시는 장기간 방치돼 우범지역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상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이 서로 관심을 두고 집주인을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440곳에 태양광·지열 설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 월 5만원 이상 전기료 절약

보성군은 오는 4월8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 공공청사, 상가, 축사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공모 사업이다.

보성군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군비 19억원을 들여 440곳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주택에 설치·보급하면 월 5만원 이상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자부담률은 전체 사업비의 20% 정도이다.

보성군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보성읍·덕량면·회천면·웅치면 434곳, 지난해 벌교읍·조성면 549곳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노동면·미력면·겸백면·울어면·북내면·문덕면 440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섬 지역과 12개 읍면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4년 차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선정자 설치동의서 방문 수령은 오는 1월 말부터 진행된다. 사업은 현장실사 이후 진행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올해 1만원 인상...1066명에 월 2억2700만원 지원

순천시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올해 월 1만원 오른 21만원씩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됐다.

이달 1066명에게 총 2억270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에서 63% 이하로 상향해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양육비를 18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만 지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22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확대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제철, 업계 첫 '격주 4일제' 전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 근무제로 전환한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지난해 11월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격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제 확대를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및 재충전 기회 제공 및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새해 초 1월부터 근로자 격주 주4일 근무제에 들어간다.

첫 격주 금요일 휴무는 2월 2일이다.

앞서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을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

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1월 16일부터는 상주 근무자의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올해 신설되는 '격주 4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얹어 직원들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평균 40시간을 근무했으나, 22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으로 1시간이 더 늘어나고, 금요일은 격주로 8시간 근무 및 휴무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민 배움의 장 '사회복지관 강좌'

바둑 등 17개반 수강생 모집

구례군은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4년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강좌는 다음 달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된다. 모든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다.

모집 부문은 한글, 바둑, 요가, 단전호흡, 댄스 스포츠, 토테니컬(식물) 아트, 그림책 감정 상담,

라인댄스, 난타, 노래 교실, 색소폰, 합창단, 탁구, 서예 교실, 문인화 총 15개 강좌 17개 반이다.

구례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노인회관, 실내체육관 4개 장소에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1인 2개 반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하거나 구례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